

보도해명자료

(‘13. 5. 3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‘임베디드SW전략’ 출발부터 빠그덕” 관련

보도에 대한 해명 (디지털타임스, ‘13.5.31)

1. 보도내용 (‘13.5.31, 디지털타임스)

- “산업부에서 관장하는 임베디드SW는 자동차, 항공기, 선박 등 8개 분야로, 이를 제외한 모바일, 의료산업 등에 포함되는 임베디드SW는 미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.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

- 미래창조과학부 직제 시행규칙(제15조제5항제1호*)에 의하면, 미래부가 담당하는 임베디드SW는 **정보통신 기기 및 설비용에 한정**되고, 이를 제외한 **일반 임베디드 SW**(동 기사에서 언급한 의료 분야 포함)는 **산업부에서 담당**

* 소프트웨어(정보통신기기 및 설비용이 아닌 내장형 소프트웨어 및 영화·음악·게임 등의 내용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) 산업의 중장기 육성정책의 수립

- 또한, 산업부가 관장하는 임베디드SW 분야는 동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8개 주요분야는 물론 **의료기기, 로봇, 산업기계, 수송기계, 생활산업제품, 물류시스템** 등 **주력 산업 전반을 포괄**함

※ 자료문의 : 전자부품과 김정일 과장, 홍수경 사무관(02-2110-5247)